

	가정통신문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민주시민 육성	2023년 4월 17일 (월)		 Member of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Educational,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
		담당자	보건(유 * *)	
		담당전화	070-7842-0995	
전북 남원시 낙현길 17-14 / http://www.seojin.hs.kr / 063-631-1333(교무실) 063-631-1331(행정실)				
4월 보건 소식				
1	엠펙스 위기경보수준 '주의'로 격상 안내			

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엠펙스 환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(엠펙스)위기경보 수준을 “관심”에서 “주의”로 상향조정[2023.4.13.(목)부터]하여 안내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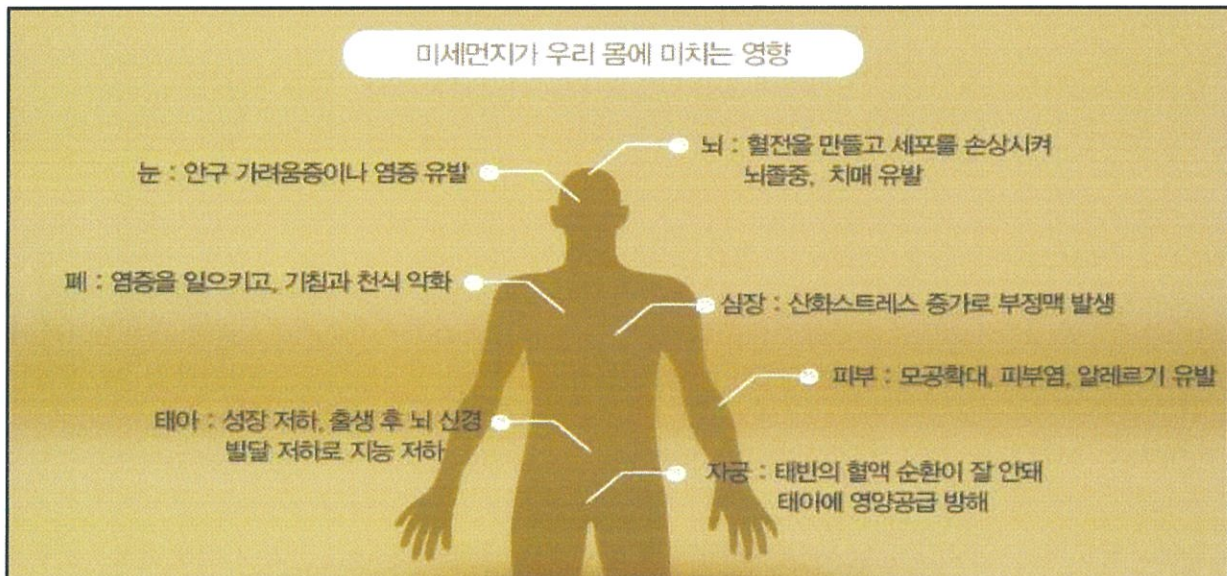
구 분	내 용
정의	원숭이두창 바이러스(Monkeypox virus)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, 발진성 질환
방역이력 및 발생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2급감염병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2022년 5월 이후 엠펙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여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, 2022년 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됨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숭이두창 바이러스(Monkeypox virus)
감염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(쥐, 다람쥐,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),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음.
잠 복 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~21일(평균 6~13일)
주요증상 및 임상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열, 오한, 림프절 부종, 피로, 근육통 및 요통, 두통, 호흡기 증상(인후통, 코막힘, 기침 등)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, 보통 1~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발진은 얼굴, 입, 손, 발, 가슴,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'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펙스는 대부분 2~4주 후 자연 치유되며, 치명률은 1% 미만으로 보고됨 전구기(3~5일 간): 전염력이 강한 시기
진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체(피부병변액, 피부병변조직, 가피, 구인두도말, 혈액 등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환자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자: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1인실 격리 입원·치료 의사환자: 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(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)
예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방접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(미국)과 EMA(유럽)에서 두창과 엠펙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염된(감염의 위험이 있는)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·간접적 접촉 피하기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(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)과의 접촉 피하기 의심되는 사람,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,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엠펙스 발생국(장소)을 여행하는 경우,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

2 황사 및 미세먼지 대응 계기 교육 안내

최근 대기환경의 변화로 황사 및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 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기오염 농도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리며, 위기 경보 발령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지도 바랍니다.

•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

- **황사**는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흙모래로 주로 자연적 활동으로 발생. 칼슘, 철분, 알루미늄, 마그네슘 등 토양성분을 주로 포함한다.
- **미세먼지**는 주로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황산염,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, 탄소 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진다.








• 2013년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**1군 발암물질**로 지정

♦ 황사 및 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 시 학교 대응 사항

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.5 75이상 2시간 지속	•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•학교 내 식당 기계.기구 세척,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
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.5 150이상 2시간 지속	•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※ 체육활동, 현장학습,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•수업시간 조정, 등·하교(원) 시간 조정, 임시휴업 검토 •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(조기귀가, 진료) •학교 내 식당 기계.기구 세척,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

♦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수칙

(미세먼지 '나쁨' 이상인 경우, 호흡기·심혈관계·천식 등 민감군은 '보통'에도 준수)

<p>■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, 장소 피하기 (출·퇴근시간, 도로·공장 등) -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률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시에는 활동량 줄이기
<p>■ 외출 시 항사마스크 착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(KF80, KF94, KF99) -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- 호흡기, 심혈관질환,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<p><보건용 마스크(KF80, KF94, KF99)의 올바른 사용 방법>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     </div>
<p>■ 외출 후 손, 얼굴 깨끗이 씻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출 후 미세먼지가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, 얼굴을 깨끗이 씻기 - 병원균을 제거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기
<p>■ 수분, 과일,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폐물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 -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을 충분히 먹기 (과일,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)
<p>■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반드시 환풍기 작동시키기 -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-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

3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안내

학교에서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발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가정에서 조기 예방 및 사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.

<p>• 개인위생 준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바른 손씻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 등 실시 ○ 기침 예절 지키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- 기침 후 올바른 손 씻기 실천 -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-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(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) ○ 자기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<p>•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</p>
<p>•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(발열 및 기침, 인후통 등)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</p>
<p>•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, 충분한 휴식 및 수분·영양 섭취</p>

2023. 4. 17.

남 원 서 진 여 자 고 등 학 교

